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4일 월요일 음 11월 21일 (13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4℃, 낮 최고기온은 10~11℃로 전망된다.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낮은 기온이 지속되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20%	제 주	20%
20%	성 산	20%
20%	고 산	20%
20%	서귀포	20%

	해뜸 07:39		달뜸 22:49
	해짐 17:39		달짐 11:17
물때	만조 01:30		간조 08:09
	14:24		21:09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6/7℃
모레	흐리고 눈	2/5℃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주의	높음

월드뉴스

코로나 이긴 이탈리아 남 간호사의 청혼

방호복 입은 채 프러포즈 화제

방호복에 작성된 프러포즈 문구.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이탈리아의 한 남자 간호사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여자친구에게 청혼, 소셜미디어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주세페 푼젠테는 최근 페이스북에 호흡기 병동 복도에서 머리 부터 발끝까지 덮은 방호복을 입은 채로 뒤돌아 서 있는 자신의 사진을 한 장 게시했다.

등을 덮은 방호복 위로는 이탈리아어로 "카멜리, 나랑 결혼할래?"라는 문구가 써져 있었고, 그 밑으로 대답을 요구하는 듯한 '네', '아니오'라는 단어도 적혀 있었다.

여자친구 카르멘 핀토에게 공개적으로 '페이스북 프러포즈'를 한 것이다.

푼젠테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이를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최근 백신을 맞았다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코로나19에서 회복돼 바이러스 최전선에서 싸우는 간호사로서 진정한 삶은 소소하고 단순한 것들로 이뤄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적었다.

푼젠테의 '페이스북 청혼'은 2일까지 5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는 등 입소문을 타고 SNS 등에서 퍼져 나갔다.

여자친구 핀토는 이 글에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YESSSSSS"라는 댓글로 청혼을 승낙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윤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김 성 훈
편집부장

2021년 코로나19 종식 시작되는 해 되길

잘 걸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졌다. 서 있던 사람이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푹 쓰러졌다. 영화속 한 장면같은 이 모습은 지구촌에 코로나19를 알리며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인류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시발점이다.

지난해초만해도 남의 일인줄 알았다. 동영상속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일 것만 같았다. 또 이전에도 그랬듯 설령 우리에게 닥쳐도 금세 끝날줄 알았다.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있다. 불행히도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1년이 흘러가는 지금, 국가별로 개인별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각 나라의 대응책과 개개인의 행동이 그야말로 사뭇 다르다. 대응능력 밖으로 벗어나 코로나19 창궐을 사실상 방치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코로나 방역을 국가 제1의 정책으로 여전히 집중하는 국가도 있다. 개인의 경우도 자기에겐 상관없는 듯 펜데믹 이전처럼 생활하는 이가 있는 반면 국가의 정책을 따르며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이도 있다.

펜데믹이 막 시작되던 지난해 초 우리는 마스크 하나에 생존을 걸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마스크 이야기였다. 그래서 마스크 하나를 얻기 위해 줄을 서고 기다리는 불편함을 감수했다. 행동 하나하나도 그만큼 조심스러웠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과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최대한 자제했다. 언론을 통해 보여진 인기척 없는 시장의 모습과 텅빈 거리에 우리는 충격을 받으면서도 안도했다.

문제는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람이 지쳐가고 있다는 점이다. 푹 쓰러지던 사람의 모습이 가져온 공포와 두려움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희석되기 시작한게 사실이다. 팬데믹 초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던 우리사회도 언제부턴가 곳곳에서 빈틈이 보이기 시작했다. 거리두기가 느슨해졌다. 겨울철들어서 1일 확진자수가 전국적으로 1000명 남짓 발생하고 있고 한때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불리던 제주의 경우도 두자릿수 발생이 일상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악화일로인데 눈살을 지푸리게 하는 이들이 넘쳐난다. 마스크를 쓰라는 이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남의 시선을 아랑곳 않는 이들이 적지 않으며 자가격리 준수 위반자가 여전하다. 방역준칙을 어기고 몰래 장사하는 유흥업자들도 부지기수다.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도 여행을 강행하는 몰지각한 이들과 코로나19 판정이 나기전 도주해 경찰력을 낭비시키는 파렴치범도 생겨나기도 했다. 더욱이 정치권은 코로나19를 정쟁화 하며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코로나19가 막 창궐하던 때 가졌던 '초심'이 필요한 때다. 집단감염에 자기일인냥 안타까워하고, 나보다 남을 걱정하며 주변사람의 안부를 걱정하던 그 때 그 모습이….

전문가들은 팬데믹 상황이 조만간 종식되지는 않으리라 보고있다. 하지만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희망이 보이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시점이 문제일 뿐, 팬데믹 상황은 극복되리라 확신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2020년처럼 한 해를 참고 인내해온 때가 있었을까. 2021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2020년을 디딤돌로 삼아 코로나19 종식이 시작되는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열린마당

자동차세 잠깐 알고 가실게요

조 은 나
서귀포시 세무과

가구당 평균적으로 자동차를 1대이상 보유하고 있어 주차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한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고 화물차의 경우는 적재정량 등 기준이 된다. 연세액의 10만원인 경우 6월에 일괄로 부과되고, 10만원이상인 경우는 두번으로 나눠 6·12월에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납부한 이후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면 일할계산이 되어 환급을 받게 된다.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폐차·소유권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수시분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6·12월에 두 번 납부해야하고 만약 8월에 자동차를 폐차했다면 7월1일부터 8월 폐차한 날까지 일할 계산하고 9월에 수시분으로 부과돼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수시분 고지서를 받기 전에 차량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 자동차등록원부의 변동사항을 세무과로 신고하여 바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도 가능하다.

2020년 제작된 배기량 3000cc 승용차인 경우 지방교육세 30%가 포함되어 연세액의 78만원이나 된다. 2번에 나눠서 낸다고 해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이런 경우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추천 드린다.

연세액의 10% 경감되던 것이 2021년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경감비율이 줄어들긴 하지만 78만원 연세액의 경우 7만원이 넘는 금액을 할인받고 납부 가능하게 되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 무이자할부 카드를 잘 활용해 납부한다면 일석이조다. 또한 연납으로 납부한다면 간혹 잊고 발생할 수도 있는 가산금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무궁무진한 가치 '로컬푸드' 활용 건강레시피

이 미 숙
제주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장

제철 농산물, 싱싱한 식재료에 어머니의 정성으로 차려졌던 밥상에 둘러앉아 행복했던 추억을 곱씹어 보면 그 자체로 건강한 로컬푸드 밥상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식생활은 제철 음식, 제철 농산물이라는 말이 혼동이 올 정도로 식재료가 연중 생산 수급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은 산과 들, 바다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던 제철 농수산물에 대한 체감이 부족하다.

또한 요즘 개인 SNS 채널을 활용한 먹방, 쿡방으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 수요가 줄고 집밥족에 의한 배달음식 주문과 가정간편식 소비 등 온라인 농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소비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국가간 경계가 불분명해져 외국산 농산물, 가공식품들이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먹거리 안정성에 대한 고민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 이에 대한 대안이 로컬푸드 활용이다.

제주의 청정 공기, 물, 자연을 벗삼아 밭담을 의지해 바람을 이겨내고 맛깔스럽게 자라난 제주 동부의 농산물은 오롯이 건강한 식재료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주 동부지역 7대 대표 제철 농산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활용해 보다 건강하고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레시피를 개발해 전통요리부터 퓨전요리까지 다양한 요리로 응용해 볼 수 있도록 '쉽게 배우고 차리는 로컬푸드 건강레시피' 책자를 발간해 1월 4일부터 무료 보급하니 '언택트 푸드 라이프'에 활용해 보기를 바란다. 가을을 넘어선 겨울, 무, 당근 등 월동작물이 저마다의 맛과 기능을 품고 소비자와 만나고 있으니, 그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레시피를 찾아보고 가족 건강 레시피로 거듭난다면 농부의 땀방울에 가치가 더해져 소비자 가족 건강에 보탬이 될 터이니 상상만 해도 마음이 뿌듯하다.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히트예감 • 윈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2021년 3월 납품 예약마감
사전예약 특전(2년생 탱자대목) 2022년 3월 납품
예약기간 2021년 3월 10일까지
히트예감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남진해(카라향), 제라몬, 탐나는봉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 평 1,3,4년생
탱자묘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 해 향 4,5년생
황 금 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 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어짐.
·카라향 1, 4년생
·유라조생 1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궁천 1,2,3,5년생
·고림조생 3년생
·하례조생 2,3년생
·한라봉 5,6년생
·하귤 2,3,7,8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묘목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